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의'

트럼프,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2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

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후 한미 외교 당국은 구체적인 방한 시기와 형태를 조율해 왔다.

G20 정상회의는 다음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6월 하순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날짜

를 특정하지 않음에 따라 방한 전 또는 방한 후 이뤄질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에 한국을 먼저 찾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조율해 왔다.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 길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무게를 뒀던

/뉴스시스

“교육자의 날’ 제정 휴무일 확보해 주자”

김희수 도의원 “교사 권리 신장·사기 진작 위해”



교사의 권리신장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육자의 날’ 제정을 통해 휴무일을 확보해 주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퇴색해지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근로자들이 휴무일을 갖는 것처럼 ‘교육자의 날’을 제정,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특히 스승의 날의 경우 교육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피해 다니는 등 교육을 둘러싼 바깥 풍경을 눈치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의 교육 앞에 교단의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근로자의 날’처럼 ‘교육자의 날’을 제정해 교육자들에게 이날만큼이라도 충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스승의 날인 15일 전북지역 초등학교 424개교 중 182개교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도의회 수소경제연구회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가온셀을 찾아 수소버스 생산공정과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수소경제의 미래, 현장에서 찾는다

도의회 수소경제연구회, 현대차·가온셀 등 현장 의정활동 수소 인프라 구축·핵심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시급

전북도의회 수소경제연구회는 16일 전북지역 수소경제 산업현장을 방문해 전북 수소산업의 현주소와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수소경제연구회(대표 오영근 도의원)는 이날 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가온셀을 찾아 수소버스 생산공정과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오영근 의원(전주2)은 “오는 2022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수소전기버스 2000대 보급을 위해선 현대자동차의 양산체제 구축

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면서 수소충전소가 한 대도 없는 전북의 현실을 꼬집었다.

지난 2017년 전기버스 양산에 들어간 현대자동차는 올해 수소버스 30대를 납품했고 수소트럭 50대도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전문생산기업인 가온셀은 도내 업체로서 수소지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개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오 의원은 또 “정부 수소산업 육성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북의 주력산업인 상용차 및 연료전지 산업의 비약

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수소산업 핵심 중소기업 육성과 수소생산 유통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어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두산퓨얼셀 익산공장을 견학하고 연료전지 사업이 확장될 경우 향후 추가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연구회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정수 의원(익산2)은 “현대차와 두산퓨얼셀 등 대기업과 연계한 기존 도 내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과 새로운 투자유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생산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역, 홀로그램 기술 전진기지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 “체험 플랫폼 설치 운영”

익산역이 홀로그램 기술의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홀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KTX 익산역에 최첨단 홀로그램 체험 플랫폼이 설치 운영된다고 16일 밝혔다.



접목한 공연장이 설치된다.

또 상암과 광주 플랫폼을 삼원오 연결해 5G 홀로그램 가요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KT, (주)홀로티브글로벌은 지난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에서 공모한 ‘5G 기반 실감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춘석 의원은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들 기관들은 5G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에 들어간다.

익산시는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예산 4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KTX 익산역사 내에 5G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기술과 멀리 떨어진 사람을 일체로 불러오는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이 의원은 “영국의 손흥민 선수가 홀로그램을 통해 한국 꼬마 팬의 눈앞에 나타나는 한 통신사 광고의 장면을, 드디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지난해 세계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홀로그램 기술 발전에도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익산에 문을 열게 될 홀로그램 서비스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이번 5G 기반 홀로그램 가요제를 비롯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익산과 전북이 명실상부한 홀로그램산업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무단 매설 옥서 미군 송유관 해법 찾아

바른미래 김관영 의원, 군·관·민 대책회의 열어

군산 옥서지역 일대 사유지에 무단 매립된 미군 송유관 문제 해결을 위해 군·관·민이 머리를 맞댔다.

1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군산시 그리고 주민 대표가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여 신창한 미군 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제도개선과 및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관계자, 주민대표로는 한안길 시의원과 고봉찬 변호사, 군산시청은 환경정책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 측은 구조물 철거 범위 확대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여 과정이 생략된 송유관 매립에 대한 행정 문제를 시인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송유관의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이에 합당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해당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현 송유관과 구 송유관의 매립 위치도를 요청한 상태”라며 “환경

부여 신창한 미군 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환경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 밝혀진다면 정화 작업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송유관의 위치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지만, 군산시 시정에 필요한 경우 열람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뜻도 전했다.

한안길 시의원은 “미군들은 무단 설치 송유관 문제와 함께 미 공군기지 탄약창고와 계산마을의 간격이 직선거리로 560m에 불과해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방조하는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탄약창고 인근 계산마을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2020 영유 방문의 해
2019~20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